

“맷 데이먼 액션연기 참고했어요”

현빈, 영화 ‘공조’서 추격·격투씬 등 강렬한 남성미 눈길

“카메라 앞에 서는 곳이 전쟁터라면, 배우는 몇 달씩 갑옷을 입어야 하죠. 작품에 따라 두꺼운 갑옷을 입을까, 얇은 갑옷을 입을까 배우가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영화 ‘공조’는 현빈(35·사진)의 절치부심이 느껴지는 작품이다. 그는 지금까지 보지 못한 강렬한 액션 연기를 보여줬다.

영화 속에서 현빈이 맡은 역은 북한 특수 정예부대 출신 립철령이다. 이를 위해 자동차 추격신, 와이어, 격투, 총격신 등 장르를 뛰어넘는 액션 연기를 직접 소화해냈다. 고가도로 위에서 사뿐히 뛰어내리는 것은 물론 물에 젖은 두루마리 휴지 하나로도 적을 가볍게 제압한다.

이런 고난도 액션 연기는 철저한 사전 준비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현빈은 촬영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를 많이 하는 배우로 유명하다. ‘역린’(2014)때도 ‘등근육이 세밀하다’고 적힌 시나리오 때문에 석 달 전부터 운동하고 식단을 조절한 일화는 유명하다.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캐릭터다 보니까 액션을 철저히 준비했죠. 러시아 특공무술 시스템마도 배우고, 리허설도 했습니다. 준비를 많이 하다 보니 욕심도 나요. 다양한 아이디어도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위험한 장면은 빼고 나머지는 제가 직접 했습니다.”

그가 선보인 액션 연기는 그동안 한국영화에서 많이 보왔던 칼부림이나 장도리 액션과는 차원이 다르다. 영화 ‘본’ 시리즈의 맷 데이먼이나 ‘잭 리처’의 톰 크루즈가 떠오를 정도로 절도 있고, 각이 잡혀있다.

11일 서울 종로구 삼정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현빈에게 ‘할리우드 액션을 보는 듯했다’는 소감을 들려주자 “실제로 촬영 전 맷 데이먼의 액션 연기를 참고했다”며 웃었다.

전날 시사회에서 자신의 연기를 처음 봤다는 현빈은 어느 정도 만족스러웠는지 한결 여유 있는 표정이었다. “어제까지 긴장했지만, 지금은 제 손을 떠나서인지 긴장을 내려놨습니다.”

‘공조’는 현빈의 연기 인생에서 중요한 작품이다. 해병대 제대 이후 선택한 영화 ‘역린’과 드라마 ‘하이드 지킬, 나’(2015)가 잇따라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기 때문. 따라서 이번 영화는 그의 티캐파워를 다시 한번 검증해보는 시험대 같은 작품이다.

현빈은 그러나 크게 연연하지는 않는 듯 보였다. 현빈은 2003년 드라마 ‘보디가드’로 데뷔한 뒤 2005년 ‘내 이름은 김삼순’으로 일약 톱스타로 떠올랐다. 이후 5년간 여러 작품에 출연했지만 큰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시크릿 가든’(2010~2011)으로 한류스타가 됐다. 그리고 다시라는 기다린 끝에 ‘공조’를 만났다. ‘공조’가 흥행에 성공하면 약 5~6년을 주기로 히트작을 만나는 셈이다.

“예전에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으로 한바탕 난리가 났었

죠. 그 당시에는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인기가) 실감이 안 났어요. 그리고 5년 뒤에 ‘시크릿 가든’의 상황이 왔을 때는 그 상황을 즐겼죠. 저는 늘 좋은 상황만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인기가) 없어질 거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연연하지 않는 것 같아요.”

현빈의 필모그래피를 보면 군 제대를 전후로 다른 색채를 띤다. 해병대 입대 전까지 드라마 ‘그들이 사는 세상’(2008), 영화 ‘백만장자의 첫사랑’(2006), ‘나는 행복합니다’(2009), ‘만추’(2011),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2011) 등 주로 멜로 연기를 해왔다.

반면 제대 후에는 ‘역린’(2014)과 ‘공조’에 이어 현재 촬영 중인 ‘꾼’(2017)까지 남성미가 물씬 넘치는 역할을 선택했다.

“연기변신을 의도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20대 때는 메시지가 있고 여운을 주는 작품에 더 끌렸다면, 지금은 관객들이 가볍게 접할 수 있는 작품에 더 끌리는 것 같아요. 늘 새로운 것, 지금까지 안 해본 장르나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관객들도 저의 또 다른 모습을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현빈은 “무엇이든 결정하기 전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라며 “대신 한번 결정하면 후회하지 않고 달리는 성격”이라고 했다. /연합뉴스



‘도깨비’ 잠시 휴식

“후반부 하이 퀄리티 제작”… 14일 스페셜 방송

평균 시청률 15%(닐슨코리아)를 돌파하며 인기리 방영 중인 tvN 드라마 ‘도깨비’가 한 템포 쉬어간다. tvN은 오는 14일 ‘도깨비’의 본편 대신 스페셜 방송을 방송한다고 11일 밝혔다. 13일 방송은 예정대로 한다. 스페셜 방송에선 등장 인물 간 얽히고설킨 이야기와 남은 분량의 복선을 흥미롭게 풀어낼 예정이다.

tvN은 “새로운 장르를 시도하다 보니 고난도 촬영과 CG 등 후반 작업에 시간적 어려움이 있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기존 드라마에서 볼 수 없던 최상의 퀄리티와 완성도로 시청자의 기대를 충족하게 할 수 있게 남은 회차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도깨비’는 종영까지 4편만을 남겨둔 상태로, 김은숙 작가가 최종화 대본을 탈고한 것으로 알려져 그가 해피엔딩과 세드엔딩 중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아목이 쏠리고 있다.

tvN은 14일 휴방하는 대신 오는 21일에는 15화와 16화 2편을 연속방송하겠다고 예고했다. /연합뉴스

‘무한도전’도 숨고르기

7주간 재정부… “더 높이 뛰려 준비”

MBC TV 이 7주간 숨 고르기에 들어간다.

MBC는 ‘무한도전’이 오는 28일부터 7주간 재정부 기간을 가진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설날인 28일부터 특집 프로그램 ‘사실춘기’가 3주간, 이후 ‘무한도전 레전드’가 4주간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25분 ‘무한도전’ 시간에 편성된다. ‘무한도전 레전드’는 역대 ‘무한도전’의 인기 에피소드를 골라 재방송하는 것이다.

MBC는 “더 높이 뛰기 위한”이라며 “휴식기, 방학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규방송은 몇 주 쉬겠지만 회의와 녹화는 계속 진행된다”며 “회의, 준비, 촬영과정을 재정부하기 위한 시간을 갖는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1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 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인제나 불날)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TV블로그 꿈지락 30 아침연속극 (아이 소리 강남구)
9	30 KBS 뉴스	00 TV스텝 (저 하늘에 태양이)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쁜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방학특선 KBS대기획 다들 다들 바다의 제국 (재) 50 한국인의 발도발상 스페셜	00 수목드라마(다시, 첫사랑) (재)	00 불어라 미용사 (재)	00 안녕 자두야 30 고향이 보인다
12	00 KBS 뉴스 12		00 MBC 정오뉴스 20 수목드라마 (역도요정 김복주) (재)	00 SBS 12 뉴스 30 KBC 12뉴스 50 TV블로그 꿈지락 55 특선다큐 (그래도 행복한 학교 가는길)
1	0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5 KBS네트워크특선 보물섬 55 감성애니 하루 (재)	00 생생정보 스페셜	30 헬로키키 놀라운 자연 이야기 2	55 닥터 365
2	00 국민의당 당대표 후보 토론회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00 국민의당 당대표 후보자 초청 토론회	00 국민의당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
3	30 코리아 지오그래피 플러스 55 트윈생활제초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유지원	30 텔레온스타 40 헬로키키 아하! 동물탐험대 2	30 TV블로그 꿈지락 35 남도의 보물 100선
4	00 4시 뉴스집중	00 누가 누가 잘하나	25 MBC 일일드라마 (황금주머니)(재)	00 4시, 뉴스브리핑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파파독 플러스 30 주간연예수첩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오뉴스 50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뉴스타임 2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 365 15 고향건강문록 남도에 살어리랏다
7	00 KBS 뉴스7 35 한국인의 밤상	50 일일드라마 (다시, 첫사랑)	15 일일연속극 (행복을 주는 사람) 55 MBC 뉴스데스크	15 TV블로그 꿈지락 20 일일드라마 (사랑은 방울방울)
8	25 일일연속극 (빛나라 은수)	30 글로벌24 55 신년기획 베타민	55 MBC 일일드라마 (황금주머니)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9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00 KBS 스페셜 신년기획 2부작 55 슈퍼 VR 신년기획 자랑스러운 박물관	00 맨몸의 소방관	00 미생나인 더 비키닝	00 드라마 스페셜 (푸른 바다의 전설)
11	00 KBS 뉴스라인 40 특집다큐 (시니어 도전기, 인턴)	10 해피 투게더	05 닥터고	10 자기가 - 백년손님
12	30 네트워크 문화특선 올댓뮤직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10 MBC 뉴스 24 35 휴먼다큐 사람이 좋다 스페셜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EBSe 생활 영어 05:30 통일 미리보기(재)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07:00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재) 07:30 뽀뽀뽀 뽀로로 07:45 꼬마버스 타요 08:00 똥똥똥 유치원 1~3 08:45 Why - 최고대 호기심딱지 09:00 주사위 오징어 큐비주 09:15 시계마을 티키텐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09:40 무도 <위대한 연마>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꽃게탕과 시래기 들깨조림>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장수의 비밀 12:40 역사채널e 12:45 연중기획 - 미래를 여는 교육 13:40 스콜랜드-한자왕국 13:50 그림을 그려요 13:55 출동! 슈퍼피스 14:25 최강전사, 미니특공대(재) 14:55 모피와 친구들 15:05 두기탐험대
15:20 꼬마키사 마이크 15:35 오솔산자 15:45 코코리코 16:15 두디다공 16:30 Why - 최고대 호기심딱지(재) 16:45 똥똥똥 유치원1~3(재) 17:30 뽀뽀똥 뽀로로(재) 17:45 꼬마버스 타요(재) 18:00 생방송 특집! 보니하니1~4 19:00 갤럭시 안전 프로젝트 19:30 EBS 뉴스 19:5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20:40 다크우울 <바다의 말뚝, 상자해파리>	20:50 세계테마기행 <히말라야의 선물, नेपाल - 순수한 영혼의 고향> 21:30 한국기행 <추울수록 그리워라 - 여기서 우리 오래오래> 21:50 동물과 인간의 한판 승부 (우리가 몰랐던 동물의 능력 2) 22:45 다문화 고부열전 23:35 글로벌 가족정착기 24:05 세상의 모든 범죄 <절친에게 고민을 털어 놓기가 더 힘든 이유는?> 24:10 스페이스 공감 1.2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월 12일(음 12월 15일 己亥)
子	48년생 진행되던 일이 마취지라라. 60년생 조금의 편이를 도모 하다가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다. 72년생 일관성 있는 꾸준함이 요구되는 때이다. 84년생 현재, 진행하는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 단언 내는 바가 많은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9, 72	42년생 부실함은 약점의 발미를 제공한다. 54년생 시기를 놓친다면 소용이 없느니라. 66년생 획기적인 의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78년생 길사가 펼쳐지면서 영예롭겠다. 90년생 단순한 시각으로 바라보다면 오해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33, 39
丑	49년생 풍요로운 재물을 부르는 요인이 된다. 61년생 지난날의 영화를 회복하는 운세로 볼 수 있으니 안심해도 되는 단계이다. 73년생 처음의 것이 가장 나으니 그것을 택하라. 85년생 가히 집착하고도 남음이 있다. 행운의 숫자 : 29, 01	43년생 연쇄적인 효과를 보게 되면서 작용력이 커진다. 55년생 근사치가 될 것이니 만족할 만하다. 67년생 의도적인 술수가 보인다. 79년생 가변성을 염두에 두라. 91년생 재고의 여지가 전혀 없으니 과감하게 처치해도 된다. 행운의 숫자 : 43, 65
寅	50년생 경험을 되살리다면 충분히 도약할 수 있다. 62년생 만사 제쳐 두고 제일 먼저 처리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으니 잊지 말고 있다가 제대로 처리하라. 74년생 말리하는 것이 무방하다. 86년생 일독일실 하리라. 행운의 숫자 : 80, 17	44년생 평상시에 정상적인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어야만 실제 상황에서 제대로 활용하는 효과가 있다. 56년생 상부상조한다면 능률을 극대화한다. 68년생 관리를 잘 해두라. 80년생 비웃을 때 비로소 채울 수 있는 법이다. 행운의 숫자 : 93, 23
卯	51년생 어떠한 방법을 다 동원하더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다. 63년생 도모하기에 바람직하지 않는 시기이다. 75년생 미동도 하지 않을 것이니 아예 포기함이 낫겠다. 87년생 움직임 보다는 가만히 있는 것이 훨씬 낫다. 행운의 숫자 : 64, 75	45년생 일방적이었던 무리함을 낫는다. 57년생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드러나면서 이해관계가 복잡해진다. 69년생 요건을 구비하는 데는 애로 사항도 보인다. 81년생 희망을 여는 디딤돌이 마련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81, 85
辰	52년생 오매불망하며 학수고대하여 왔던 바가 드디어 빛을 보게 되는 날이다. 64년생 가까운 이로부터 새어나가고 있다. 76년생 즉흥적이었던 다분히 오만의 소지가 있다. 88년생 공멸해 왔던 것에 대한 실마리를 찾게 된다. 행운의 숫자 : 58, 86	46년생 전혀 다른 양상으로 비화 되리라. 58년생 미리 책임의 소재와 한계를 분명히 해두어야 말뚝의 소지를 잃을 수 있다. 70년생 뜨거운 화젯거리가 보인다. 82년생 확실히 서면 과감하게 실행해도 무방하다. 행운의 숫자 : 12, 51
巳	53년생 너무나 크고 충격적인 일이라서 아무 경황이 없을 것이다. 65년생 입을 다물고 마음속으로만 삭여야 하는 장면이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77년생 불안전하다. 89년생 완전하게 고칠 필요가 있겠다. 행운의 숫자 : 89, 06	47년생 가마솥의 콩도 삶아야 먹을 수 있다. 59년생 주변인들과의 조화와 상호보조가 절실하다. 71년생 무의식중에 쉽게 속을 수도 있는 날이다. 83년생 상대의 청이나 제안을 원안대로 들어주는 것이 훨씬 더 낫다. 행운의 숫자 : 26, 37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